

군포소식

Gunpo Monthly Magazine

2016

10
제351호



그녀의 음악과 노래를 통해 전달되는 무한돌봄 이야기는 따뜻한 나눔과 위로가 된다

2016 군포시 무한돌봄 홍보대사 심어송라이터 오은영

02 행복한 군포

군포에선 백 세 인생 즐겁다고 전해라~
군포시 10~11월 어르신 관련 프로그램 다양

+ 이번 달부터 11월까지 다양한 어르신 행사가 개최된다. 군포시가 준비한 다채로운 어르신 행사운영 계획을 한눈에 살펴본다.



09 군포 삼매경

둘레길과 임도길
가을에 더 걷기 좋은 군포 수릿길

+ 거창한 계획도, 요란한 장비도 필요 없다. 가을에 걷기 좋은 군포 수릿길의 대표 코스 둘레길과 임도길을 둘러보자.



11 반갑습니다

음악으로 전하는 온기
2016 무한돌봄 홍보대사 심어송라이터 오은영

+ 심어송라이터이자 군포시 무한돌봄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녀를 만나 음악과 삶, 그리고 무한돌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16 건강속삭

가벼운 나뭇잎에 제격!
감자샌드위치
+ 손쉽게 만들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감자샌드위치 이용한 단백질 감자샌드위치들 소개한다.



군포시와 SNS로 친구맺기





**한국VS일본, 게이트볼 대치로 빛나는 실버프렌드십
군포시, 일본 아츠기시 노인 친선 게이트볼대회**

군포시 노인 게이트볼 팀은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아츠기시를 방문해 친선경기 등 교류활동을 벌인다. 방문단은 이튿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츠기시 오아카와 야구장에서 노인 친선 게이트볼대회에 참가한다. 군포시 2팀, 아츠기시 2팀 등 4팀 24명이 참가하며, 우승팀에게는 우승컵도 수여된다.



**사회 발전에 애쓰 아르신들 노고에 감사
제2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군포시는 10월 11일 문화예술회관 수리홀에서 제 2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 기념식 전에는 혈압, 혈당측정, 청력검사 등 원광대학 산본병원 한림소리샘의 건강부스도 운영된다. 기념식에서는 모범 노인, 노인복지 기여자, 모범노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표창이 수여되며, 주민등록상 100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지팡이(청려장) 증정식도 열린다.



군포에선 백 세 인생 즐겁다고 전해라~

군포시 10~11월 어르신 관련 프로그램 다양

“팔십 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 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백세인생’ 가사처럼 백 세 인생은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건강한 노년에 대한 열망은 점점 더해지고, 관련 프로그램, 행사들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10월 2일은 제20회 노인의 날로, 군포시 역시 이번 달부터 11월까지 다양한 어르신 행사를 개최한다. 군포시가 준비한 다채로운 어르신 행사 운영 계획을 한눈에 살펴본다.

글 노경희

TIP 군포 어르신 복지의 메카

군포시노인복지관

군포시 어르신들에게 교양·취미생활, 세대교류, 사회참여, 건강증진, 소득보장, 자가복지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 운영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체
- 개관 1998년 5월
- 주소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223(당동)
- 사업 건강지원, 사회교육, 자가복지, 경로당 운영혁신, 노인맞춤형 정서지원,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등
- 문의 TEL 399-2270 / FAX 399-2271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

군포시 북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노년을 위해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 운영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
- 개관 2015년 10월
- 주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 101(산본동)
- 사업 어르신 법률·힐링·건강·생활 상담, 자가복지사업, 평생교육, 노인사회활동지원, 기능회복 등
- 문의 TEL 392-5755 / FAX 397-5755

2017년 군포시 생활임금 시급 7,480원

내년 1월부터 적용,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 지원



군포시가 내년에 처음 적용하는 생활임금을 시급 7,480원으로 확정했다. 2017년도 생활임금은 2016년 상반기 근로자 평균 임금과 경기도 생활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시는 시의원 1명과 노동·경영계 대표 각 1명, 시에서 경제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맡은 공무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군포시 생활임금심의회'를 개최해 2017년도 생활임금을 심의·결정했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근로자는 최저 시급으로 7,480원(월급 1,563,320원)을 보장받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최소한의 문화생활 등을 누리는 데도

움이 될 비용을 더한 임금으로 군포시는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생활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 수집 등의 절차를 진행해왔다. 9월 7일에는 심의 회의를 개최했고, 같은 달 13일 내년도 생활 임금을 고시했다.

김윤주 군포시장은 "합리적인 임금안상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최근 연구결과처럼 생활임금이 민간 기업에도 적용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군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17년도 최저임금(시급)은 6,470원이고, 최근 경기도가 발표한 2017년도 생활임금은 7,910원이다.

지역경제과 390-0286

금연지킴이가 간접흡연 피해 줄인다

금연지킴이 39명, 연중 활동



군포시가 시민의 힘을 빌려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활동에 나선다. 시는 최근 39명의 '금연지킴이'를 위촉했다. 이들은 군포지역 내 11개 동에서 자원한 주민들과 산본로데오거리 상인회 회원들로 지난 8월 25일 관련 교육을 받은 후 활동을 전개 중이다.

연중 활동하게 될 군포시 금연지킴이는 간접흡연 피해를 키우는 금연거리에서의 흡연과 흡연부스 근처의 무분별한 흡연이 줄어들 수 있도록 금연질서 확립 캠페인, 담배꽂초 줍기 봉사 등을 실천한다.

또 금연지킴이는 시의 금연정책 개선과 발전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웃들에게 금연을 권하는 역

할 등도 담당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는 수시·정기 간담회를 통해 금연지킴이와 지속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금연 캠페인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전문 교육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안영란 산본보건지소장은 "금연 환경 조성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데, 금연지킴이로 선뜻 나서주시는 주민들에게 감사하며 마음이 든든하다"며 "시의 지도·단속 강화와 더불어 금연지킴이 활동도 확대될 수 있게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본보건지소 390-8989

한 눈에 보는 군포

노인 자살예방 표어 공모전... 10월 말까지 접수

시는 노인 자살예방에 도움이 되고, 생명존중 의식을 고취하는 표어를 공모 중이다.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 작품 접수는 10월 30일까지다.

포스터, 서예, 사진, UCC 등 자신 있는 분야의 작품을 만들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규격은 군포시정신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www.gpcmh.or.kr)를 참조하면 된다. 참여 희망자는 작품 원본과 참가신청서를 우편 또는 방문(군포시 군포로 211, 군포시정신건강증진센터 공모전 담당자 앞), 이메일(gpcmh02@hanmail.net) 가운데 편한 방법을 선택해 보내면 된다.

군포시정신건강증진센터 461-1771

'저소득층 무료 이사지원' 협약

시는 파란이사그룹과 '저소득층 무료 이사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파란이사그룹 노인석 대표의 군포시 복지사업 후원 약속을 통해 이뤄진 이번 협약에 따르면, 군포지역의 저소득층(보통급 1천만원 이하, 자녀 양육 가구)이 이사를 할 때 시의 추천을 받을 경우 5톤 이하의 포장이사 서비스가 무상 제공된다. 파란이사측은 향후 1년간 횟수의 제한 없이 적합한 지원 사례가 발생하면 적극 봉사를 제공해줄기로 했다.

한편 시에 의하면 파란이사그룹은 지난 2011년 10월 의왕시, 2015년 1월 구로구와도 저소득층 무료 이사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총 27회의 봉사를 시행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복지정책과 390-0941

군포시 민원봉사과내 건강체크방 운영

군포시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는 시민건강체크방이 시청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하루 평균 1,200여명 이상이 방문하는 민원봉사실에 시민 스스로 기본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체크기와 편의시설을 설치해 대민 봉사의 수준을 높였다고 밝혔다.

민원실 내에 있던 자활사업장 아미스 카페를 건물 외부로 방향 전환(매장 입구)하면서 확보된 공간에 자동 혈압계와 신장·체중계를 설치해 '시민 건강 체크방'으로 조성한 것이다.

또 시는 이 공간에 안마의자 1대를 설치해 민원인들이 여권과 여러 증명서류 발급 등 민원 처리 대기시간에 잠시나마 피로를 풀 수 있도록 하고, 휴대폰 살균 충전기도 비치해 민원편의 서비스를 보강했다.

민원봉사과 390-0131



2016 군포시 재정공시

동종 자치단체 대비 채무액 적고, 공유재산 많아



군포시는 인구·재정 규모가 유사한 자치단체와 비교해 채무액은 월등히 적고, 공유재산은 많아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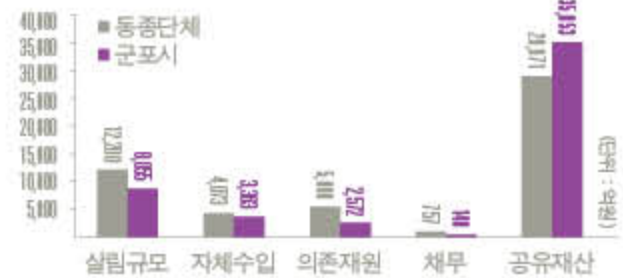
군포시는 최근 재정공시(2015년 결산)를 통해 이전보다 시 채무가 60억원 줄어 들고, 공유재산은 723억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시에 의하면 2015년 말 기준 채무액은 140억원으로, 시민 1인당 지방채무는 4만 9천이다. 동종 지방자치단체 채무 평균액이 757억원이고, 시민 1인당 채무액이 23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건전함을 알 수 있다. 또 공유재산은 2015년 말 기준으로 3조5천53억원인데, 전년에 비해 72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동종 지방자치단체의 평균(2조9천971억원)과 비교하면 5천82억원이 많아 군포시가 도시 규모는 작지만 재정운영 효율성은 좋다는 것이 입증됐다. 뿐만 아니라 시의 자체수입도 군포첨단산업단지 개발 사업(분양) 추진에 따라 2014년 말 기준보다 1천242억원이 증가한 3천363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전반적으로 재정이 건전해졌다는 것이 시의 분석이다.

한편 더 자세한 군포시의 2015년도 재정 운영 현황을 알기 원하면 시 홈페이지(www.gunpo.go.kr, 정보공개-예산/재정공개)에서 '2016년도 군포시 재정공시'를 확인하면 되며, 공시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시 기획감사실에 문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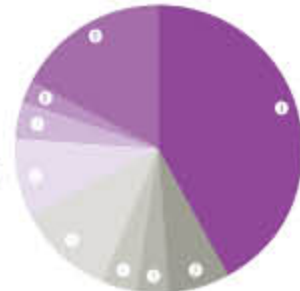


동종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 규모 비교



분야별 세출규모('15년 일반회계)

- 사회복지 181,676
- 일반공공행정 29,187
- 환경보호 15,457
- 문화 및 관광 17,518
- 수송 및 교통 46,616
- 국토 및 지역개발 38,009
- 교육 17,319
- 보건 11,400
- 기타 73,371



동종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주민 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성희롱 등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군포시의회는 9월 6일 시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시의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을 진행한 엄건영 강사(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원)는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4대 폭력 예방'이라는 주제로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자세 및 4대

폭력에 대한 대처방안 등의 내용을 예를 들어가며 알기 쉽게 강의하여 의원들과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석진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장 내 4대폭력에 대처하는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따뜻한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nterview

[열린 의정]



봉사하는 정치,
실속 있는
주민 우선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군포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

주연규 의원

Q. 전반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감은?

A. 초선의원으로서 지난 2년은 행정감사라든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 문제와 해결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항상 감시자로 잘못된 부분만 찾아 신경을 썼는데, 우리 시 공무원들 또한 시민과 군포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습니다.

Q. 의정활동 중에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

A.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서 옥상방수 부분과 20세대 미만 다세대 주택이 제외돼 기간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하게 됨으로써 많은 지역주민의 부담을 줄여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산본1동에서 마을가꾸기 사업을 지원해서 성공리에 사업을 마쳤습니다.

Q.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은?

A. 최저 생활 임금제도 도입이 확산되는 이유는 기존의 최저 임금이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공공 분야에 한정돼 적용되지만, 생활임금제에 동참하는 민간기업이나 사업장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인센티브와 다양한 방향으로 도움을 주는 방법도 앞으로 함께 고려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Q.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한 말씀

A. 주민들이 선택해준 한 번의 소중한 기회를 감사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 사심과 과욕을 버리고 반드시 존경받는 선량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초심을 버리지 않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항상 자신을 지키는 마음으로 소신을 지켜가겠습니다.

청원과 진정, 이렇게 하면 편합니다!



청원은 주민이 시정에 관해 의견 및 희망사항, 개선사항, 주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에 따른 구제, 공무원의 비리시정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다. 다만,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청원/진정 처리안내

군포시의회는 시정 및 의정 등에 관한 진정을 접수, 처리하고 있다.

- 대상 : 진정, 건의, 탄원, 호소문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접수처 : 군포시 의회사무과

청원/진정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 처리

- 집행기관 이송 처리
- 특별위원회 회부

처리 기간

-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 절차

- ① 청원서 제출(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 날인)
- ② 청원의 수리
- ③ 특별위원회 회부·심사
 - 청원 소개 의원은 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 청원의 취지 설명
 -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 때,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원은 청원인에게 통지
- ④ 채택(본회의 의결)
- ⑤ 이송(시장이 처리해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해 시장에게 전송)
- ⑥ 보고(시장은 청원 처리 후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 ⑦ 통지

문의 의회사무과 390-8715

한글파괴 타파에 나선 군포시 청소년들! 언어문화개선 UCC 제작한 군포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늘품'

올해 10월 9일은 570돌 한글날. 이에 맞춰 매년 10월이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한글 파괴, 비속어 문제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이런 가운데 언어문화개선을 주제로 UCC를 제작해 올바른 언어 사용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군포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늘품'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정리 노경희 사진제공 군포시청소년수련관



'늘품'이란? '앞으로 좋게 발전할 가능성'이란 뜻의 순우리말



친구들 자정 위해 청소년이 직접 나서 의미 더해
인터넷 커뮤니티 발달 등으로 인한 무분별한 줄임말, 은어, 한글 파괴는 오랜 사회문제로 여겨진다. 특히 10~20대 젊은 층으로부터 급속도로 퍼지는 의계어·비속어 남발, 한글파괴 현상은 대화자 간 의사소통 장애를 일으키며 심각한 세대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청소년수련관 소속인 청소년운영위원들은 여기 주목했다.
이들은 UCC를 만들기 전부터 청소년 언어문화개선 활동인 '응답하

라 대왕세종을 운영 중으로, 지난 5월부터 캠페인 활동과 페이스북 공모 이벤트 등을 펼쳐왔다. UCC 제작에 앞서서는 지역 청소년들의 언어문화 실태를 조사하고, 언어문화개선 이벤트와 서명운동도 진행했다. 인하대 국어문화원과 연계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 과정을 거쳤다.
기획, 연기, 촬영, 편집까지 도움 없이 스스로 직접 진행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위원들은 UCC를 직접 기획하고 연기부터 촬

영, 편집까지 도맡아 스스로 제작했다. 제작된 UCC는 군포지역 버스 정류장의 버스 안내시스템과 수련관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군포시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은어와 비속어를 별다른 의식 없이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직접 진행해 의미가 크다"며 "UCC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군포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TIP

UCC란 무엇인가?

USER CREATED CONTENTS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뜻하는 신조어로서, 개인적으로 직접 만든 저작물(영상, 사진, 심지어는 번역된 자막이나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진 답변 등을 모두 포함하는 콘텐츠)들을 일컫는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Ⅱ' 출시

전체 천명 모집, 군포시는 20명 혜택

경기도가 일하는 청년통장 시범사업에 이어 '일하는 청년통장Ⅱ'를 출시한다.

모집 인원은 시범사업의 2배 규모인 총 천명(군포 20명)으로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모집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실시된 시범사업에 지원자가 몰림에 따라 추가수요를 해소하고, 더욱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확대 추진된다.

일하는 청년통장 시범사업은 500명 모집에 3,301명이 지원해 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하는 청년 통장'은 경기도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5월 처음 실시됐다.

참여 대상자는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간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 경기도와 민간모금액을 매칭 지원해 약 1,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 390-0657



계량기 정기검사 시행

군포시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상거래용(법정용) 계량기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상거래의 공정성·정확성 유지를 위해 10월 5일까지 정기검사를 시행한다.

이번 정기검사 시행 장소는 각 동 주민센터, 산본시장, 군포시청 등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10톤(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을 사용 중인 사업주는 모두 검사에 참여해야 한다.

판수동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을 보유하고 있다면 모두 정기검사 대상인데 각 계량기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기간 내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역경제과 390-0363

주택금융공사

'은퇴금융아카데미(무료)' 개최

대상 노후 준비에 관심 있는 모든 분(선착순 50명)

기간 10. 4~ 11. 8 / 매주 화요일 3시간(14:00~17:00)

내용 은퇴 관련 경제금융 지식 및 은퇴 생활정보
- 은퇴재무설계, 소득 및 지출관리, 수지침, 풍수지리 강의, 상속·증여관련 법률정보 등

장소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
(4호선 산본역 3번 출구, 도보 10분)

혜택 수료증 발급, 노후행복설계담당자와 개별상담 제공 등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중부지사 478-7052

근로자를 위한 <디지털 카메라>

사진 무료 특강

대상 1) 군포시 거주 근로자 및 군포시 소재 회사의 근로자

2) 군포시민 누구나

인원 총 100명 선착순 마감

(1번 대상자 100명 마감시 2번 대상자 신청 불가)

기간 10. 8~29(총 4주)

매주 토요일 2시간(14:00~16:00)

내용 블로그 활용, 빛의 이해와 선택, 선과 면의 활용 등

장소 군포시근로자종합복지관

신청 마감 시까지 선착순, 방문 또는 전화 신청

문의 397-3400

군포일자리센터 10월 추천 일자리



gyeonggi.work.go.kr/gunpo/main.do 390-0613

회사명	주소	사업 내용	모집 직종 및 인원	근무시간	임금	전화번호
본앤본죽 산본점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7-1, 107호(산본동)	한식음식점	조리원 1명	주6일 09:00~21:00	월급 180만원	010-6737-9868
창의마을유치원	군포시 용호로2번길 47-20(당동)	유아 교육	조리사 1명	주5일 08:30~17:00	시급 6,030원	010-2835-7426
(주)사이트	군포시 당정로75번길 23, 47호(당정동)	금속가공물 제조 판매	캐드원 1명	평일 09:00~18:00	월급 200만원	031-395-2137
(주)제이에스텍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4-17(산본동)	외산자재 영업납품	소방 내진설계원 1명	주6일 08:30~18:00	연봉 2,000만원	031-399-2401
반디비즈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6, 503-2호(산본동, 럭키빌딩)	온라인마케팅 홈페이지 제작	웹디자이너 1명	평일 10:00~18:30	월급 150만원	070-7771-8778
(주)씨엔오산업	군포시 산본로 63(당정동)	폐식용유 도매	소형 트럭 운전원 1명	평일 09:00~18:00	월급 190만원	031-424-1107
(주)이우기기	군포시 흥안대로 15-31(금정동)	가스누설 정보기등 제조	전자영업사원 1명	주6일 08:30~17:30	연봉 2,700만원	031-459-6771
효재가복지센터	군포시 군포로 554(당동)	방문 제가 요양,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명	평일 09:00~18:00	월급 140만원	031-459-1377
(주)진일프라스틱	군포시 공단로 72(당정동)	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	생산관리자 과장급 1명 (사출 관련 경력자)	평일 09:00~18:00	연봉 2,000만원	010-9240-2240
미성엠프로(주)	군포시 번영로 504(산본동)	건물 관리용역/ 시설물 유지	시설관리원 1명	3교대 근무(주야비비) 주간 09:00~18:00 야간 18:00~09:00	연봉 1,950만원	010-8757-2086



둘레길과 임도길 가을에 더 걷기 좋은 군포 수릿길

거창한 계획도, 요란한 장비도 필요 없다. 가벼운 운동화 한 켤레 챙겨 아파트 뒷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은은한 흙냄새와 함께 푸른 숲으로 우거진 전원풍경을 만날 수 있다. 경기도 시·군 중 비교적 작은 면적에 속하는 군포는 이처럼 도시와 자연이 오밀조밀 연결돼 있다. 이런 특징을 잘 살린 군포판 둘레길 '군포 수릿길'. 특히 가을에 걷기 좋은 군포 수릿길의 대표 코스 둘레길과 임도길을 둘러보자.



생명을 품은 초록숲길, 수리산 둘레길

군포시민들의 수리산 사랑은 유독 깊다. 해발 500m가 채 안 되는 아담한 높이로 산세가 험하지 않으면서도,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듯 도시를 두르고 든든하게 감싸 안아주는 모습에 시민들은 심과 새 힘을 얻곤 한다.

산본역에서 군포시청과 이마트를 지나 문화예술화관 쪽으로 뻗은 직선도로를 따라 걷다 나오는 육교를 오르면 학교 뒷담을 끼고 바로 산길이 시작된다. 이 길이 '노랑바위'. 흙길과 나무 계단을 번갈아 오르다 보면 '명상의 숲'과 임도5거리, 감투봉, 밤바위가 이어진다.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시간은 3시간 30분 정도. 중간중간 셋길이 있어 어디로든 내려가거나 끼어들 수 있다는 점도 소소한 재미다.

- 거리 약 16km • 소요시간 5시간 30분
- 주요코스 산본역 > 태을초 > 노랑바위 > 임도5거리 > 감투봉 > 밤바위 > 시민체육광장 > 산본역
- 코스소개 수리산 둘레길은 굽이굽이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돼 산속의 운치를 한껏 느낄 수 있다. 코스가 다소 길어 힘들다면 임도5거리로 오르지 않고 8단지 중앙도서관으로 내려 오는 하프코스를 즐겨도 좋다.

숲의 마을을 전체로 조망할 수 있는 유일한 등산로다. 중앙도서관 옆 가파른 길만 오르면 그 후로는 4살 아이도 걷기 편한 임도가 쭉 이어진다.

- 거리 약 4.8km • 소요시간 1시간 40분
- 주요코스 중앙도서관 > 임도5거리 > 덕고개 > 행복쉼터 > 속달동 마을길
- 코스소개 중앙도서관 옆 가파른 길만 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4살 아이도 걷기 편한 임도가 쭉 이어진다. 코스의 중간 어디에서든 돛자리와 먹거리만 준비하면 유쾌한 소풍을 즐길 수 있다.

② 쉬엄쉬엄 걷고싶을 때, 풍경소리길

임도5거리에서 수리사로 이어지는 길은 인적이 드물고 한적해 조용히 걷기 좋다. 사실 풍경소리길은 수리사에서 끝나지만 시간 여유가 있다면 바람고개길이나 당숲길을 이어 걸어도 좋고 남덕골에서 마을버스 1-2번(1시간마다 운행)을 타고 대야미역으로 나와도 된다.

- 거리 약 5km • 소요시간 1시간 20분
- 주요코스 수리산역 > 철쭉동산 > 중앙도서관 > 임도5거리 > 수리사
- 코스소개 철쭉의 도시 군포의 자랑 철쭉동산에서 예쁜 인증샷을 찍고 구불구불 아파트 숲을 지나면서 식사를 못했다면 이길 끝에 있는 음식점에서 요기를 해도 좋다.

③ 원시의 숲에 부는 바람, 바람고개길

수리산 임도길 중 가장 깊은 숲의 정취를 가진 이 길은 남덕골에서 수리사 방향으로 5분쯤 올라간 곳에서 시작된다. 울창한 수림과 나무동치를 감고 올라간 치렁치렁한 침당굴 등 머리 위 풍경은 마치 강원도의 원시림 속을 걷는 듯한 착각을 들게 한다.

- 거리 약 5.6km • 소요시간 1시간 50분
- 주요코스 남덕골주차장 > 수리사방향 > 임도입구 > 바람고개 > 에덴기도원 > 남덕골주차장
- 코스소개 남덕골 주차장에 차를 대고 수리사를 향해 오솔길을 오르다 보면 왼쪽으로 수릿길 바람고개로 접어드는 좁은 길이 있다. 남덕골 주차장으로 다시 올라가지 않고 반월호수 쪽으로 발길을 옮겨 반월호수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겨도 좋다.



수리산 고수들이 추천하는, 수리산 임도길

풍경소리길, 바람고개길, 구름산책길. 이름조차 너무도 아름다운 수리산 임도길은 코스마다 특징이 명확해 '등산 고수들' 사이에서도 호평이 많다. 산길임에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의자와 정자가 곳곳에 배치돼 쉬엄쉬엄 느긋느긋 삼림욕을 즐기기에 적당하다.

① 문 열면 일렁이는 푸른 숲길, 구름산책길

중앙도서관에서 출발해 임도5거리, 덕고개를 지나 속달동마을길로 통하는 구름산책길은 수리산과 산기



함께 나누고 배우며 성장하다

군포 소상공인 소셜클럽

현대는 PR(Public Relation) 시대다. 현대사회는 마케팅도 PR로 하고 정치도 PR로 하고 전쟁도 PR로 하는 시대다. 더구나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SNS를 활용한 홍보 분야는 경제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급성장했다. 그에 발맞춰 소상공인들이 모여 SNS를 활용한 마케팅을 연구하고 공유하는 모임이 있다. 바로 '군포 소상공인 소셜클럽'이다.

글 김은 사진 주효상

매주 이어지는 기초 SNS 무료 강좌

매주 수요일, 산본로데오거리 고객지원센터 강의실에서는 색다른 수업이 진행된다. 블로그 운영에서부터 PPT 제작, 보도자료 작성, 동영상 제작, 세무상식, 저작권법 등 홍보마케팅과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매주 새롭게 이어진다. 주목할 점은 강사와 수강생 모두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는 것이다.

'군포 소상공인 소셜클럽'은 골목 상권을 지키며 자영업업을 하는 사람들과 자영업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모여서 소셜 네트워크 활용법과 스마트폰 활용, PPT를 이용한 가게 홍보자료 만들기 등 컴퓨터를 활용한 모든 공부를 하는 모임이다. 군포라는 지역에 한정을 짓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자영업업을 하는 이들에게도 문이 열려 있다. 특히 강사와 수강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자신이 가진 지식과 노하우를 서로 전하고 공유하는 스터디 모임인 셈이다.



“페이스북 친구이신 공인창 생활문화아카데미 대표께서 분당지역에서 수업을 진행한다는 글을 보고 저희 군포에서도 소셜 수업 진행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산본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고재영 씨는 '군포 소상공인 소셜클럽'의 존재 이유를 '공유와 협업'이라고 말한다.

“함께 공부하는 분들은 식당 사장님, 컴퓨터 가게 사장님, 슈퍼 사장님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서로 힘을 합쳐 지식을 나누고 경험을 전하고 있죠.”

같은 길을 가는 이들 간의 끈끈한 동료의식

교육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이어진다. 컴퓨터 가게를 운영하는 김석운 씨가 노트북 등 장비를 제공해 활용한다. 때때로 다양한 분야의 재능 나눔 강사님들이 특강을 진행하기도 한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대형 프랜차이즈 사이에서 자기 자신과 가게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하기에 어쩌면 SNS 교육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 중 하나일 것이다.

SNS를 이용해 전국의 손님들을 응대하게 되니 그 결과 가게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또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도 하고 서로 사는 이야기도 나누다 보니 힘든 일상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하는 회원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이 진행됐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고.

'군포 소상공인 소셜클럽'이라는 이름에는 일반 클럽처럼 누구든지 방문해 편한 마음으로 같이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회원 가입도 없고 탈퇴 신청도 없다. 시간에 맞춰 오면 하루를 수강하든 계속 오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저 소상공인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뿐이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셜 공부 모임이기에 오시는 분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가입 절차는 없으니까 클럽처럼 자연스럽게 교육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같은 자영업자로서 함께 서로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포 소상공인 소셜클럽

일시 매주 수요일 19:00~21:00

장소 산본로데오거리 고객지원센터 (청운빌딩 505호)

대상 SNS 홍보에 관심 있으신 분 누구나 참여 가능

준비물 스마트폰, 노트북(있으신 분만), 가게홍보물, 명함 등

비용 무료

참고 www.facebook.com/groups/gunposo



이 지면은 우리 지역의 문화 공동체 형성,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활용됩니다. 소개하고 싶은 공동체나 이색 거리, 특화 상권을 군포소식 편집실(390-0663)로 추천해 주세요.



일상, 관계, 사람... 그리고 음악으로 전하는 온기

2016 무한돌봄 홍보대사 **싱어송라이터 오은영**

싱어송라이터 오은영의 노래는 자신의 경험과 일상에 기인한다. 소박한 자신의 일상을 진솔한 노랫말과 멜로디로 풀어낸다. 간결하면서도 선명한, 튀지 않으면서도 잔향이 오래 남는 노래를 만들고 부른다. 그래서 더욱 듣는 이로 하여금 공감을 얻는가보다. 2016년 군포시 무한돌봄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녀를 만나 음악과 삶, 그리고 무한돌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글 김은 사진 주효상

일상이 노랫말이 되고 멜로디가 되다

“따뜻한 감성과 에너지 넘치는 목소리의 공존”

싱어송라이터 오은영에 대해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지난 2012년 ‘날자오농’으로 데뷔 후 꾸준히 활동해 온 그녀는 감미롭거나 때론 폭발적인 에너지를 선보이며 팬들의 가슴에 위로와 감동을 전해왔다.

‘날자오농’으로 활동해오다 2015년 6월 첫 정규앨범 <살아있는 거리>를 발표하며 ‘오은영’ 본명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녀의 음악은, 특히 정규앨범에서(그녀는 모든 곡을 직접 작사·작곡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 소중한 것들을 놓치거나 잊은 채 살아가는 이들에게 행복이란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곁에 꿈틀대는 생명체처럼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진솔하고 담백한 가사와 서정적인 사운드에 고스란히 담아냈다.

그녀는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자신의 음악세계에 대해 “나의 삶 속에서 마주치는 모든 순간들에 좀 더 조심스럽게 다가간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어요. 그것은 어쩌면 내가 바라보는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일상, 관계, 사람에 관해 관심이 많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 항상 기록하고 메모하며 나름의 가치와 의미

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따뜻한 감성의 싱어송라이터’라는 과분한 수식어가 생긴 것 같아요.”

그녀는 학창시절 가수 장필순의 노래를 좋아했다. 나직한 목소리로 독백, 혹은 방백을 하듯 읊조리는 그녀의 음색과 멜로디를 유난히 좋아했다. 그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크게 힘이 들어가지 않은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게 되었다고

그녀는 얼마 전 싱글앨범 <오늘도 우리는>을 발표한 뒤 다양한 무대를 갖고 있다. 기록하는 것을 즐기는 그녀답게 블로그나 SNS 등도 활발히 운영하며 팬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일상을 통한 소박한 깨달음이 노랫말이 되고 멜로디가 되어 일상에 지치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따뜻한 음악을 전하고 있다.

무한돌봄 홍보대사로 군포를 누비다

그녀는 현재 군포시 무한돌봄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3월 국내 인디 음악계의 유망주인 ‘밴드 플랫폼’과 함께 군포시무한돌봄센터와 무한돌봄 서비스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무한돌봄센터는 혼자만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에 당면한 위기가정의 자립지원 및 위



기를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사례관리 기관이다. 9석9석 희망 찾기 토크콘서트라는 이름으로 매월 1회 진행되는 공연은 지역주민과 접촉이 많은 공공기관의 정규 교육 또는 회의 시간에 군포시무한돌봄센터 홍보대사들이 방문해 공연과 함께 무한돌봄 서비스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계기가 닿게 된 것은 저의 음반제작부터 여러 부분을 함께하고 있는 밴드플랫폼 ‘유밴’ 덕분입니다. ‘유밴’은 기존 생태계의 문제점들을 찾아 보완하고, 새 무대를 확장해보자는 의미를 담아 정말 좋은 일들을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덕에 저까지 인연이 이어졌네요. 저로서는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고 뜻깊은 무대입니다.”

그녀는 위촉식 이후 군포시여성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군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교사 교육 현장에서의 콘서트를 시작으로, 최근에 군포우체국에서 있었던 공연까지 늘 밝고 즐거운 마음으로 무대에 임하고 있다.

“무한돌봄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9석9석 희망 찾기 토크콘서트가 그저 하나의 행사 개념이 아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계층 및 가정들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싱어송라이터 오은영
 데뷔 2012년 날자오농 디지털 싱글 앨범 [AM:8]
 경력 2016년 3월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홍보대사

앨범
 2012. 9 싱글앨범 'AM:8'
 2015. 6 정규앨범 '살아있는 거리'
 2015. 12 싱글앨범 '먼저 말할게'
 2016. 7 싱글앨범 '오늘도 우리는'

블로그 <http://blog.naver.com/young880224>
페이스북 www.facebook.com/EunyoungDh2015
유튜브 www.youtube.com/onyong880224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_nyong
메일 young880224@naver.com



산본도서관, 정부가 지정한 고전인문학당

문광부 주최 '길 위의 인문학' 공모 선정

군포시산본도서관이 정부가 지정한 '고전인문학당'이라는 위상을 얻었다.

산본도서관은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해 진행한 '2016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고전인문학당 모집 공모'에 응모한 결과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지난 8월 시행된 문광부의 공고문에 의하면 중장년층을 위한 고전 인문학 심층 강좌를 운영할 대표 도서관을 선정·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전국의 공

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문광부는 최근 산본도서관을 포함해 총 33개의 공공·대학도서관을 2016 고전인문학당 운영 도서관으로 공고했다.

한편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 공공도서관은 865개이며, 대학도서관은 670개에 달한다.

정동건 산본도서관장은 "11월까지 루쉰과 노자 등 역사적인 동양 사상이 고전을 함께 읽으며 토론하고, 지

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고전인문학당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준비·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본도서관은 지난 9월 12일부터 20일까지 고전인문학당 프로그램 안내와 함께 참여자 신청 접수를 군포시도서관 홈페이지(www.gunpolib.or.kr)를 통해 시행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산본도서관 390-8841

이달의 도서관 행사

〈나만의 패널리티어 만들기〉

참가자 모집

운영 10월 8일~11월 26일 매주 토요일(총 8회), 14:00~15:30
기간 마감 시까지
대상 군포시 초등 2~4학년(10명)
장소 부곡도서관 문화강좌실
접수 군포시도서관 홈페이지
재료비 30,000원
문의 부곡도서관 390-4081

2016 하반기 산본도서관

〈시민 헌책장터〉운영 안내

• 운영
기간 10월 8일(토) / 10월 22일(토)
시간 13:00~17:00
장소 중앙공원(산본도서관 후문 방향)
참여대상 희망자 누구나
내용 중고책 사고팔기 및 교환하기
물품종류 도서, 관련물품
편의제공 돗자리 대여
• 신청
기간 상시
방법 군포시도서관 홈페이지, 전화 신청
문의 산본도서관 390-8842

가족과 함께하는 동화요리

일시 10월 16일(일) 10:00~11:30
대상 군포시 가족 10팀(최대 3인)
장소 어린이도서관 3층 소극장
접수 10월 11일(화)~13일(목)
인원 선착순 10명
재료비 15,000원
문의 어린이도서관 390-8680

〈밥이 되는 인문학〉

지혜와 감성의 융합

• 10월
강사 이지선 작가
주제 삶은 선물입니다
일시 10월 27일(목) 14:00
장소 군포시청 대회의실
• 11월
강사 노명우 교수(아주대학교)
주제 불안의 시대,
세상물정을 안다는 것
일시 11월 24일(목) 14:00
장소 군포문화예술회관 찰떡홀
• 12월
강사 한명기 교수(명지대학교)
주제 G2시대, 병자호란을 돌아보다
일시 12월 22일(목) 14:00
장소 군포시청 대회의실
문의 책읽는정책과 390-0903

군포시 도서관의 10월 추천 도서

01

〈아동〉
도서관에서
만난 해리



서울 암사도서관의 문지기가 된 고양이 해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림책이다. 작가들은 암사도서관 직원들과 이용자들을 만나 취재한 사실을 토대로 상상력을 발휘해 이야기를 꾸몄다.

02

〈청소년〉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



실록에 등장하는 왕의 목소리를 현대어로 풀어써 당시의 정책과 주요 사건들이 일어난 배경, 조선사의 큰 줄기와 핵심을 알고 싶어 하는 독자들에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역사 이야기를 들려준다.

03

〈성인〉
아무것도 없는
방에 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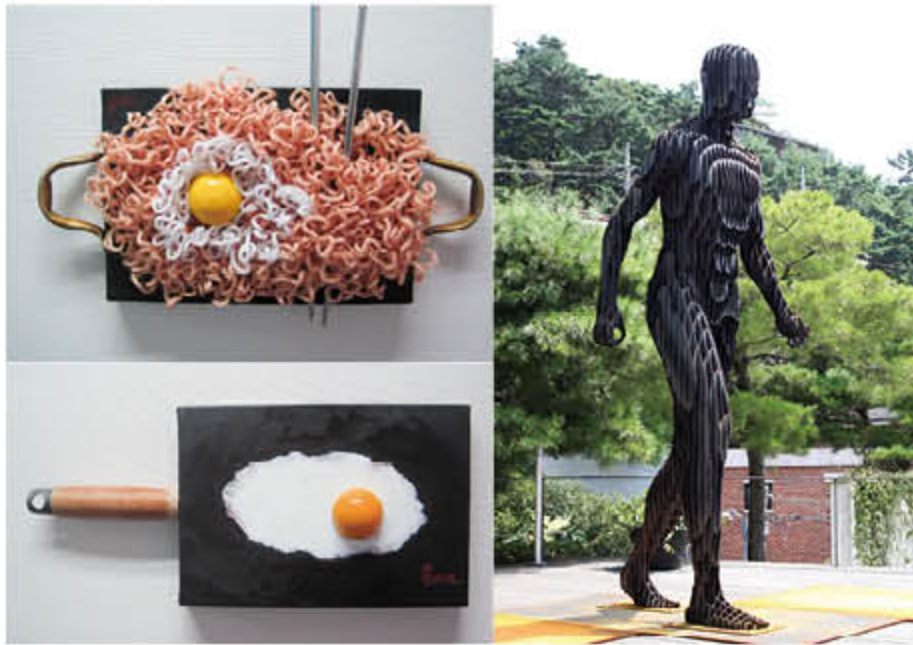
일본의 대표 미니멀리스트 10인의 생생한 미니멀 라이프 도전기가 담겨 있다. 복잡하고 머리 아픈 생활에서 벗어나 출가분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 현대인들에게 자극제가 되어줄 것이다.

※ 더 많은 추천도서는 군포시 도서관 홈페이지(www.gunpolib.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래기억전 & 업사이클 아트전

일상과 상상의 경계를 넘다! 10월 14일까지 동시 개최



(재)군포문화재단은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군포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과 제2전시실에서 '신기방기 우리동네 미술관-미래기억전'과 '2016 업사이클 아트전'을 동시에 운영한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2016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미래기억전'은 국내외 유망 작가들을 초청해 현대 미술의 트렌드를 소개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미술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다가올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생생한 모습을 의미하는 '미래기억'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성동훈, 송필, 신치현 등 총 8명의 설치미술 작가들의 작품 16점을 만날 수 있다.

스테인레스 재질 작품으로 만들어진 인간과 자연의 모습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과 침묵하는 자연의 공존을 표현하고, 나아가 인간과 자연의 공존으로 평화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미래기억전'이 전문 예술가들의 작품을 통해 수준 높은 현대미술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면 '업사이클 아트전'은 우리 이웃들의 보다 친근한 이야기가 있는 자리다.

군포문화재단의 자체 기획 전시인 '업사이클 아트전'은 군포를 포함한 경기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작가 5인과 아심희, 어울림, 아트업 등 예술동아리단체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특히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활용품 소재에 작가들의 기발한 상상이 가미된 재미있는 예술 작품들이 친근함을 더해줄 예정이다.

군포문화재단 관계자는 "두 가지 전시 모두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감상할 수 있게 꾸며질 예정"이라며 "많은 분이 시원한 가을바람과 함께 집 가까이에서 예술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포문화재단 390-3520

제28회 군포시민의 날 기념 음악회

- 일시 10월 7일(금) 19:30
- 장소 시민체육광장
- 출연 SG워너비, 노라조, 박남정, 매드타운, 소나무, 로드보이즈, 박성은
- 문의 군포예총 392-4511 / 홍보실 390-0063

군포시민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체육대회

- 일시 10월 8일(토) 09:20~16:30
- 장소 시민체육광장

여성회관 한글교실 수강생 작품전시회

- 일시 10월 6일(목)~10월 31일(월)
- 장소 여성회관 4층 로비
- 내용 여성회관 한글교실 수강생들의 시화작품 전시회
- 문의 군포문화재단 390-3080

다문화체험단 세계를 품다 '다문화 축제'

- 일시 10월 15일(토) 14:30~16:30
- 장소 군포시청소년수련관 앞마당
- 대상 군포시민 및 관내 청소년
- 내용 다문화체험부스 운영 및 다문화인식개선 등
- 문의 군포문화재단 390-1425

상상과 현실이 만나다 '2016 군포 사이언스'

- 일시 10월 22일(토) 09:00~18:00
- 장소 산본로데오거리
- 대상 군포시민 및 관내 청소년
- 내용 과학체험부스, 초·중·고·대학교 과학동아리 체험부스, 로봇대회 등
- 문의 군포문화재단 390-1422

2016 군포시청소년어울림마당 10월 멀티마당

- 일시 10월 22(토) 14:30~16:30
- 장소 산본이마트 앞
- 대상 군포시민 및 관내 청소년
- 내용 테마별(가을DAY) 체험거리 운영 및 동아리 경진대회
- 문의 군포문화재단 390-1425

제3회 마을축제 「소통과문화잔치」 운영

- 일시 10월 29일(토) 13:00~17:00
- 장소 금정제일어린이공원
- 대상 청소년 및 인근 지역 주민
- 내용 체험부스, 먹거리나눔, 프리마켓 등
- 문의 군포문화재단 390-1473

「군포 G시네마」 감독과의 대화

- 일시 10월 31(월) 11:00
- 장소 군포시평생학습원 5층 상상극장
- 내용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소재로 한 다큐<위로공단> 상영 및 감독과의 대화 진행, 기념품 증정
- 초청감독 <위로공단> 감독 임흥순
- 입장료 1,000원
- 문의 군포문화재단 390-3071-3

군포문화재단 10월 G시네마



10월 10일/17일(월)
수색역

감독 최승연
장르 드라마
등급 청소년 관람불가
출연 맹세창, 공명, 이태환, 이진성
입장료 1,000원



10월 24일/31일(월)
위로공단

감독 임흥순
장르 다큐
등급 15세 관람가
출연 신순애, 이종각, 이기복, 김영미
입장료 1,000원



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 장소 : 군포시평생학습원 5층 상상극장 / ☎ (재)군포문화재단 390-3071-3



♡나의 영원한 친구들♡

김현주 | 군포동

군포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친분이 쌓인 가족 같은 직장동료 네 명이 있다.
현재 하고 일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인데, 서로 위해주는 이 친구들이
없었다면 직장생활이 그리 길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처음에는 다들 낯설어 이야기도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까워지기 시작
한 우리들.
매일 보는 얼굴들이지만 봐도 봐도 좋은 사람들.
가족 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함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가족이라 생각한다.
그것도 동생, 친구, 언니가 네 명이나 생겼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음 맞는 친구들을 만나기 어려운데, 나는 참~ 복
있는 사람이 분명하다.
삶에 웃음의 원동력이 되어주는 동료들 때문에 나는 오늘도 신나고 가벼
운 발걸음으로 직장을 향한다.
직장 스트레스 모두 날려버리고 재밌게 일하자!
너희들이 함께 있어 주어 가능한 일이라 생각해!
NO 스트레스!! 재밌게 하루하루 보내자!
우리 영원히 함께 하자. 사랑하는 친구들아 ^^♡



수리산 가을

김영준 | 재궁동

낙엽이 튕구는 길을 따라
산길로 접어들니다.
앞새에 비치는 햇살
나무 끝에 아롱거리고
그늘진 도로 위에
낙엽이 스산합니다.
오가는 등산객
나무들의 가을빛
길게 그림자로 누워있습니다.

숨은그림찾기

제28회 군포시민의 날, 10월 7일



가을 편지

최영찬 | 수리동

인애와 은의(恩誼)를 담은
하얀 종이가
가을바람을 타고
순미한 마음에 내려 앉아
붉은 별빛으로 물들인다.

호호막막하게 펼쳐진
황금빛 들녘에
사랑으로 새내려간
연서가 불을 밝히며
충일감으로 가득한 가을날
온유한 향기를 놓고 간다.

숨은그림 편지봉투, 열쇠, 손목시계, 머그컵, 헤드폰, 백열전구, 바나나
수수께끼 '군포시 00지킴이'들은 간접출연 피해방지를 위해 활동 중이다. ◀ 4면 참조
정답제출 숨은그림과 수수께끼의 정답 표기 후 사진 촬영해 10월 21일까지,
군포시 페이스북([facebook.com/gunpocity](https://www.facebook.com/gunpocity))을 방문해 메시지로 남겨주세요.
다섯 분을 추천해(페이스북 공지)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상품권 발송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 동의

- 개인 정보의 수집 목적 : 당첨시 본인 확인 및 상품권 배송
- 수집하는 개인 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개인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1년 보유 후 파기

동의함
동의 안함

클래식 기타 선율에 마음을 담다

군포기타합주단 - 여섯 줄의 하모니

기타의 역사는 생각보다 깊다. 고대 그리스 유적에서도 기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악기 중 하나라고 해도 무방하다. 베토벤은 다양한 음색을 지니며 화음·선율 등 다채로운 연주가 가능한 기타에 '작은 오케스트라'라는 별명을 붙였다. 클래식 기타의 매력에 흠뻑 빠진 사람들, 군포기타합주단(여섯 줄의 하모니)의 연습실을 찾았다.

글 편집실 사진 주효상



클래식 기타 기초부터 합주까지

깊어가는 가을밤, 나지막이 들려오는 클래식 기타의 선율은 듣는 이의 마음을 더욱 애잔하게 만든다. 나일론 줄을 튕기면 그 진동은 목재 보드를 울리며 아름다운 선율로 흘러나온다. 스틸현을 사용하는 통기타와 달리 나일론 줄이 선사하는 음색은 더욱 울림이 깊고 부드럽다.

어느 클래식 기타 전문가는 클래식 기타에 대해 통기타와 같은 기타지만 주로 연주하는 장르가 달라 성악가와 대중가수의 차이와 비슷하다고 표현했다. 성악가는 클래식 음악을 부르고 대중가수는 대중음악을 부르듯이 통기타가 대중가수라면 클래식 기타는 성악가라는 것이다.

김정미 단장은 클래식 기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군포기타합주단이라고 말한다. 2011년 12월에 결성된 군포기타합주단은 군포시문화예술회관의 기타강좌에서 태동했다. 기타 강좌를 신청한 사람들 중 클래식 기타를 다루는 사

람들이 모여 합주단을 만든 것이다.

군포기타합주단은 총 10명(강사 포함)의 멤버로 구성돼 있다. 각기 다른 직장인들로 이루어졌지만, 단원 모두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다. 직업도, 나이도 다르지만 클래식 기타를 대하는 마음가짐은 서로 비슷하다. 일주일에 두 번, 화요일과 목요일에 연습실에 모여 레슨과 연습을 진행한다.

합주단을 표방하고 있기에, 무엇보다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회원들은 서로를 음악 동료이자 형제, 자매들로 아끼며 현재까지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수강생에서 시작해 동호회를 결성한 뒤 지금까지 잘 운영되는 것은 클래식 기타에 대한 회원들의 열정과 애정, 그리고 화합 덕분이라고 회원들은 말한다. 지금의 연습실도 회원 중 한 분이 회사 사무실을 내주어 마련했다.

잔잔하게 스며오는 여섯 줄의 울림

군포기타합주단은 기타를 좋아하는 사

람들이 모인 만큼 클래식 기타 독주 및 합주(2·3·4중주)를 연습하며 기량을 향상하고 있다. 아울러 재능기부를 통해 소외되거나 소통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기타 연주로 즐거움을 전하고 있다.

회원들 모두 본업이 있다 보니 시간을 아껴 연습을 하고 있지만, 군포기타합주단은 단지 연주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소외된 이웃에게 자신들의 연주를 들려줌으로써 그들 마음에 희망을 심어주고 싶다고 말한다. 현재 군포기타합주단은 주기적으로 요양원들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클래식 기타 연주로써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준현 회원은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지니 스트레스 쌓일 틈이 없다"며 "더군다나 어르신들이 제 음악을 듣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말로 클래식 기타와 동호회 활동에 대한 애정을 전했다.

변하는 건 어르신들만이 아니다. 합주

단 멤버들도 하루가 다르게 일상을 긍정적으로 대하게 됐다며 즐거운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일과 중 틈틈이 잠을 내거나 퇴근 후 집에서 기타를 잡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고, 클래식 기타가 전해준 행복은 생각 외로 크고 강했다.

정통 클래식부터 가곡, 아리랑, 대중가요에 이르기까지 장르 불문하며 클래식 기타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 군포기타합주단 회원들. 이들이 만들어 가는 하모니에는 깊은 울림과 따뜻한 배려가 녹아 있다.

가입문의 백승수 강사(010-6353-3100)

<http://cafe.naver.com/gunpoguitar>

생활문화동호회 교류와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군포시의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 '군포생동감'(군포의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함께 느껴요)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호회 및 시민은 군포문화재단(031-390-3071-3)에 문의하면 된다.

시민들이 직접 꾸미고 즐긴 군포생활문화축제 '생동감'



Gallery)에는 미술 및 사진, 공예 등 7개 동호회의 작품 100여점이 전시됐다. 또한, 올해 생동감 축제는 동호회들의 홍보활동이 이어져 평소 동호회 활동에 관심이 있던 이들이 자신에게 맞는 동호회를 찾아보는 좋은 기회가 됐다. 아울러 군포와 성남, 용인지역의 생활문화동호회 교류프로젝트인 '생활문화 삼국열전 <우리는 밴드다>', 영화 <부산행>의 영화음악 작곡가 이병훈의 '우쿨렐레피크닉'과 '밴드 뷰티핸섬' 등 초청 가수들의 공연이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지난 8월 27일과 28일 초막골생태공원 내 반디뜨락에서 '제2회 생동감 생활문화제'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생동감 생활문화제는 군포시 생활문화동호회 시민협의체가 주관해 시민 문화예술 동호회 발표의 장을 위해 마련한 행사로, 군포지역의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 '군포생동감'에 참여한 생활문화동호회 52개팀 500여명이 참가했다. 군포의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인 '군포생동감'은 2016년 현재 64개 동호회 8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크게 주목받고 있는 생활문화진흥사업이다.

이번 축제는 동호회들의 <생동감 Stage>, <생동감 Gallery>로 구성됐다. <생동감 Stage>에서는 음악과 무용, 연극 등 38개 동호회의 공연이 펼쳐졌고, <생동감 Gallery>에는 미술 및 사진, 공예 등 7개 동호회의 작품 100여점이 전시됐다. 또한, 올해 생동감 축제는 동호회들의 홍보활동이 이어져 평소 동호회 활동에 관심이 있던 이들이 자신에게 맞는 동호회를 찾아보는 좋은 기회가 됐다. 아울러 군포와 성남, 용인지역의 생활문화동호회 교류프로젝트인 '생활문화 삼국열전 <우리는 밴드다>', 영화 <부산행>의 영화음악 작곡가 이병훈의 '우쿨렐레피크닉'과 '밴드 뷰티핸섬' 등 초청 가수들의 공연이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가을철 질병 조심하세요!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 가을이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날씨 탓에 조금만 방심하면 그 어느 때보다 질병이 잘 나타나는 시기. 가을철 쉽게 찾아오는 질병들의 증상과 치료, 예방법을 알아본다.



쯔쯔가무시병

...

진드기 유충이 피부에 붙어 피를 빨아먹은 부위에 딱지가 앉으며 껍질 증상이 나타나는 '쯔쯔가무시병(진드기 티푸스, 덩불티푸스)'은 환절기 야외활동이 많은 가을철의 대표적인 질병 중 하나다. 가슴, 배 등에 피부발진으로 시작해 결막에 충혈이 생기거나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고, 반드시 돛자리를 사용, 쓴 후에는 씻어 햇볕에 말리면 된다. 야외 활동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고 옷은 세탁하는 것이 좋다.



안구건조증

...

대기오염이 심한 건조한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될 때 가장 먼저 고통을 호소하는 신체 부위는 눈이다. '안구건조증'은 특히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오랫동안 사용하는 요즘 더 흔하게 발병한다. 눈을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힘들기 때문에 건강한 습관이 중요하다. 외출 시에는 한 시간에 한 번씩 눈을 감고 눈 마사지를 하고, 인공눈물을 수시로 넣어주면 좋다. 실내에서는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줄인다.



알레르기 비염

...

코점막이 특정 물질에 과민반응하는 알레르기 비염은 황사가 잦고 꽃가루가 날리는 봄철 질병으로 알려졌지만, 장마로 인한 곰팡이나 집 진드기 등의 영향으로 가을에 훨씬 자주 발생하는 질병이다. 발작적인 재채기, 맑은 콧물, 눈과 코의 가려움증 등이 주 증상이며, 가려움증이 눈, 목, 귀 등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다. 이를 치료·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철저한 환경관리와 약물요법. 외출 시에는 마스크와 스카프를 챙기는 것이 좋다.

가벼운 나들이에 제격! 감자샌드위치

Potato Sandwich

가을은 가벼운 마음으로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이다. 손쉽게 만들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감자샌드위치로 이용한 달콤한 감자샌드위치를 소개한다.



재료 - 감자 1개(200g), 버터 1큰술(10g), 식빵 4장(160g), 마요네즈(45g), 플레인 요구르트(15g), 설탕 1작은술(3g), 오이 1/10개(20g), 당근 1/10개(20g), 후춧가루 약간, 소금 약간

조리방법

- ① 감자는 껍질을 벗기고 열십자로 4등분 한다. 냄비에 반 정도 잠길 만큼 감자를 담아 푹 삶는다.
- ② 감자를 체에 받쳐 물기를 뺀 뒤 볼에 넣어 으갠다.
- ③ 오이와 당근은 4cm 길이로 가늘게 채 썬다. 소금 약간을 뿌려 10분간 절인다.
- ④ 볼에 감자, 당근, 오이, 마요네즈, 플레인 요구르트, 설탕,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골고루 섞는다.
- ⑤ 식빵 한쪽 면에 버터를 골고루 펴 바른다.
- ⑥ ④의 1/2분량씩 올린 후 나머지 식빵으로 덮는다.

산본보건지소 390-8924

건강백세 체험 한마당

일시 10월 8일(토) 10:00~16:00

장소 산본로데오거리(금연거리)

주최 군포시보건소 · 산본보건지소

협력기관 원광대학교 부속 산본병원 외 23개소

프로그램

- 건강검진관 : 혈압혈당 측정, 체성분 측정 및 상담, 의학상담, 치아관리, 침, 뜸, 부항, 결핵검진 등
 - 건강체험관 : 금연상담, 가상음주체험, 건강주스 만들기, 건강우산 만들기, 심폐소생술 교육, 치매검사 등
 - 건강홍보관 : 저당사업 홍보, 즉석사진 촬영, 페이스 페인팅, 아토피·천식 홍보, 실종아동 사전지문 등록 등
- 문의 산본보건지소 390-8924

아토피·천식 질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대상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의 80% 미만

가정의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질환 아토피 피부염(L20), 천식(J45~46), 알레르기 비염(J30.1~30.4)

지원금액 연 20만원 이내/1인(급여, 비급여의 본인부담금, 진단서 비용)

지원범위 진료비, 약제비, 검진비, 진단서비용에 한함(한약, 대체약품, 보조식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방법 연중 접수, 접수 후 3주 이내 지급
문의 산본보건지소 390-8928

산본 뇌(腦)건강 운동교실

대상 치매 예방에 관심 있는 어르신

일정 10월 12일~11월 16일(매주 수요일)

14:00 ~ 15:00

장소 산본보건지소 대교육실(3층)

접수 기억력검사실(2층)

신청 9월부터

문의 산본보건지소 390-8976

고혈압 건강교실

대상 지역주민 약 30명

일시 10월 매주 수요일 10:00~11:00

장소 산본보건지소 3층 소교육실

(운동은 대교육실)

문의 산본보건지소 390-8951

당뇨병 건강교실

대상 지역주민 약 30명

일시 10월 매주 금요일 10:00~11:00

장소 산본보건지소 3층 대교육실

문의 산본보건지소 390-8951